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 두번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매달 첫째 주일예배는 온가족 예배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4. 4월 5일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세례 교육이 3월 첫주부터 4 주 동안 진행됩니다.
5.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5일 : 소정진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위충일 / 설교번역: 이예슬
- 3월 안내 및 봉사: 슬기로운 목장

*향후 교회 행사 (Upcoming Event)

- 부서지기 모임 : 3월 8일 주일 예배 후
- 부활절 : 4월 5일

*성서일과 Lectionary (제 9주)

창 12:1-4a, 시 121, 롬 4:1-5, 13-17, 마 17:1-9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Senior Pastor) : 김경현 목사 (213-357-7614)

예배순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 | | |
|-------------|--------------------------|---------|
|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신 6:4-5 | 인도자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 *찬양과 경배 | | 찬양팀과 함께 |
| 기도 | | 박가은 |
|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
| 성경봉독 | 야고보서 1장 16-18절 | 인도자 |
| 설교 | 첫열매, 빛으로 살아가라 | 김경헌 목사 |
| 성찬식 | | 다같이 |
| 봉헌찬송 |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4절) | 다같이 |
| 봉헌기도 | | 인도자 |
| 교회소식 | | 인도자 |
|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
| *축도 | | 인도자 |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봄의 씨앗

3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날이 꽤나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니 한 주만 더 있으면 DST가 적용되어 한 시간이 앞당겨지겠군요. 겨울이 혹독할수록 봄을 맞는 기쁨이 크다했는데 올 봄이 딱 그럴 것 같습니다. 어릴적 커다란 숫자가 써진 달력의 3월 1일 칸에다 ‘봄 시작’ 하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 3월 1일은 정식적인 봄의 시작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국에서 맞는 삼월이지만 여전히 저의 마음의 달력에 ‘봄 시작’ 이라고 적어봅니다. 지난 2월 19일은 내리던 눈이 그치고 비가 온다는 우수(雨水)였고, 3월 5일은 벌레들이 깨어나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들이 땅밖으로 나온다는 경칩(驚蟄)입니다. 아무리 동장군이 기세를 부리더라도 대세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5월까지 안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만은 아직은 미미한 봄날을 미리 맞아 보려합니다. 춘삼월이 잠습니까? 교회주변을 덮고 있던 눈들이 어느새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아직은 회색빛 짙은 나무들에 연노란 새싹을 마음으로 채색해 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곡물과 수확의 여신인 ‘데메테르’와 그녀의 딸 ‘페르세포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봄꽃을 따며 놀던 페르세포네는 지하 죽음의 신인 하데스에 의해 납치되어 그의 아내가 되고 맙니다. 딸을 잃은 데메테르는 딸을 찾아 온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그녀는 땅을 저주하고 돌보지 않게 되자 땅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제우스는 이를 중재하며 페르세포네를 일년의 절반은 땅 위로 올라와 어머니와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하 세계의 하데스와 머물게 합니다. 페르세포네가 땅 위로 올라오는 시기인 봄과 여름은 꽃들과 열매들로 가득하고,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가을과 겨울은 그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페르세포네를 ‘봄의 씨앗’이라고도 부릅니다. 가을 겨울에 땅에 묻힌 씨앗은 죽은 것 같지만 봄을 준비하는 것이고 봄이 오면 움터오른다는 자연의 순환에 이야기의 살을 입힌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알 이야기를 하신 적 있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도 있을 수 없음을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끝맺지 않고 오히려 열매 맺는 작은 봄의 씨앗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세상에 봄의 씨앗이 되어 다시 봄을 가져 오시는 예수님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새로워지길 소망하는 사순절이 봄을 기다리는 이 시즌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봄의 씨앗이 되어 전쟁과 다툼, 죽음의 문화가 대세가 되어버린 이 땅에 새 봄이 찾아 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봄의 씨앗이 되어, 온전히 썩어지는 사순절을 지나 찬란한 부활을 맞이하길 기도해 봅니다.